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경제복지 및 삶 만족

Economic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by the comparison of couple's income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Kyungok Huh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ategorized the households into four by the comparison of wives' and husbands' earned income, such as one with higher wives' income than husbands' in dual-earner households, with higher wives' income than husbands' in household with unemployed husbands, with lower wives' income than husbands' in dual-earner households, and with lower wives' income than husbands' in household with unemployed wiv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in those households. Major results are below. First, the amount of expenditures, saving, debt were low in one-earner household with employed husbands, but average propensity to expenditure was high in those households. The amount of saving was low in one-earner households with unemployed husbands, but the average propensity to expenditure and debt were high, resulting in the low status of economic well-being. The amount of saving and monetary assets were high, but average propensity to expenditure and debt were low in households in which wives had higher income than husbands, resulting in the high status of economic well-being. Second, husbands' satisfaction for the level of family income was not different among four groups of households. Wives's satisfaction for those was the lowest when wives' income was higher than husbands', but the highest in households with unemployed wives. Wives' and husband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economic well-being of the households were negative in households with unemployed husbands.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wives and husbands for their life was not different among four groups of households. Finally, four groups of households were discriminated by age of husbands, number of children, debt, and wives' expectation for the future economic well-being.

Key words : wives' income, objective economic well-being,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life satisfaction

I. 서론

최근 경기 침체, 고용불안 속에서 기혼남성의 실직, 명예퇴직이 증가하면서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2003)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265만원으로 2002년 보다 1.6%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 증가율은 IMF, 즉 1998년 이후 5년만에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위 10%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은 78만원으로, 2003년 도시근로자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소득이 지출보다 적은 적자가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경기침체로 기혼 남성의 고용불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나 명예퇴직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남성 가구주의 고용 불안, 퇴출 및 실직이 가속화되면서 주부의 생계형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2000)에 따르면, 국내 여성근로자 가운데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 30%(남성 포함 전체 근로자의 10%)를 넘어섰는데, 이는 1979년 11%에 비해 10년만에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편, 기혼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가계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03)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2002년에 비해 1.3% 감소한 반면, 배우자 근로소득은 53.3%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저소득 가계에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 Corresponding author : Kyungok Huh
Tel : (02) 920-7408 Fax : (02) 921-6804
E-mail : kohuh@sungshin.ac.kr

배우자가 대거 맞벌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 경제 침체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남편실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로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가계, 남편이 실직한 가계 등 부부의 소득수준 및 취업여부에 따라 가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가계유형의 다양화는 가계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 궁극적으로 삶 만족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객관적·주관적 경제복지, 삶 만족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는 주로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 가계의 가계경제 구조에 대한 연구(예: 양세정, 1993, 1997b, 1998, 1999; 허경옥, 2001), 남편과 부인의 소득수준이 경제복지 또는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예: 임정빈, 1987; 고보선, 임정빈, 1992; 김재경, 문숙재, 1992; 박미금, 1992; 박미석, 1994; 고정자, 1998) 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하다. 다시 말해, 남편과 부인의 소득수준 차이에 초점을 두고 가계의 객관적·주관적 경제복지, 삶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소규모 자료 수집에 의존하고 있거나,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한 경우 도시 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주부의 취업여부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부부의 소득수준의 차이나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 중 몇 % 정도가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가,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는 어느 정도인가 등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가계의 소득구조를 비교·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부인의 소득수준과 남편의 것을 비교하여 네 유형의 가계로 구분한다. 이 네 유형은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 부인 소득이 남편보다 높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낮은 맞벌이 가계,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즉 남편 소득이 높은 전업주부 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유형의 가계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측면의 경제적 복지 수준, 삶 만족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이 네 유형의 가계를 판별하는 판별변수가 무엇인가를 조사한다.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의 비교에 따른 다양한 가계유형에서 가계의 객관적·주관적 경제복지, 그리고 삶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시기 적절한 연구라도 본다. 보다는 경제적 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로 인한 임금 상승, 실직한 남편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부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라 가계의 객관적·주관적 경제복지를 비교·분석하는 본 연구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가계 경제복지와 관련한 노동정책, 인력수급정책, 가족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복지 수준이 낮은 가계의 취업장려 정책, 저소득 가계 지원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인의 소득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 다양한 가계에서의 경제복지 수준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빈곤가계, 실직가계, 전형적인 전업주부 가계 등에 적절한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계의 경제적 복지

경제적 복지는 경제복지를 개인과 가족원이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 걱정감의 정도를 말한다(McGregor, Goldsmith, 1998). 경제복지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데, 객관적 복지는 가계소득은 물론 소비지출액, 총 자산, 순자산, 총 부채 등에 의해 측정되는 반면, 주관적 복지는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 자원의 정도 인지, 재정상태 만족, 소득 적정도 인지,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고보선, 임정빈, 1997; 김민정, 1994;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 1998; Campbell, 1976). Campbell(1976)은 개인의 경제적 만족도는 개인이 가진, 소득, 직업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자신의 경제환경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Sumarwan, Hira(1993)는 재정상태 만족은 생활만족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소득적 정도 인지가 재정상태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상호 영향력이 있어 두 척도를 모두 사용하여야 가계의 진정한 경제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Daniel, Maria, 1998).

2. 기혼여성의 취업, 소득과 가계경제 복지

기혼여성 취업과 관련한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계경제구조, 즉 객관적 경제복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견해는 주부취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음은 물론

인데, 그 정도는 주부의 취업상태, 직업유형, 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기춘, 민현선(1992)은 도시신혼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가계총소득의 80%가 가구주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가계총소득의 50% 이상을 기여하는 주부는 5%정도, 30% 이상을 기여하는 주부는 18%로 나타났다. 양세정(1997b)은 취업주부가계의 총 소득은 남편의 소득으로부터 약 60%, 취업한 주부의 소득으로부터 33%, 기타 소득 약 7%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경옥(2001)은 월 평균 총 가계소득은 전업주부 가계 169만원, 비전문직 취업주부가계가 279만원, 전문직 주부가계가 376만원으로, 비전문직 취업주부와 전문직 취업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득은 99만원(총 가계소득 중 35%)과 160만원(총 가계소득 중 43%)이라고 밝혔다.

주부취업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 주제는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인데, 대체로 주부취업은 외식비, 가사서비스, 공공교통, 미용 등의 서비스, 경조사 및 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양세정, 1993, 1997a; 문숙재, 김혜연, 1995). 양세정(1999)은 가처분소득에서 총 소비지출을 공제할 경우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흑자액은 약 60여 만원, 전업주부가계의 경우 약 31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세정(1999)은 취업주부의 추가적 취업비용은 주부소득의 5%로서 미국의 27%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취업주부의 가계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허경옥(2001)은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주부의 직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비전문직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61만원, 전문직 취업주부 가계의 경우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부취업의 순수 기여도를 가계총소득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면 비전문직 취업주부 가계의 경우 22%, 전문직 취업주부 가계의 경우 31%로 주부가 전문직에 취업된 경우 순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계의 주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고보선, 이영호, 임정빈(1997)은 미래 가계제정상태에 대한 기대감을 주관적 경제복지 지표로 간주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의 경우 연령, 가계소득이 중요한 요인이며 취업주부의 경우 현재 가계관리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유의한 변수임을 밝혔다. 한편, 고보선, 임정빈(1997)은 객관적 경제복지와 주관적 경제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주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 연도가 객관적 경제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복지는 가계재무관리 행동이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계선자, 유을용(2000)은 가계경제 복지감은 소득수준, 소득적정감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Yamaguchi, Wang(2002)는 결혼한 부부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상의 지위, 즉 사회적 계층(class)을 결정하는 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남편과 부인의 소득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나, 부인의 직업상의 지위는 남편의 것과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각기 다르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3. 기혼여성의 소득과 삶 만족도

주관적 복지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개인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 또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어 왔다(Campbell, 1976). 고정자(1998)는 삶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남편의 삶 만족도는 직업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인의 경우 소득, 직업만족, 근무시간, 취업동기가 유의한 변수라고 밝혀 소득 및 취업 관련 변수가 부인의 삶 만족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려 주고 있다. 박미석(1994)은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목표 및 기대달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충족감의 정도라고 정의 내리면서,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바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견해는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남편보다 낮은 수준이며(고보선, 임정빈; 1992; 박미금, 1992, 박미석, 1994), 소득은 대체로 생활만족도를 높이고(김재경, 문숙재, 1992; 임정빈, 1987; 고정자, 1998),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이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미석, 1994)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의 비교에 따라 삶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직접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한편, Tichenor(1999)는 미국 북동부에 거주하는 부부 중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50% 높은 경우와 반대로 남편의 소득이 부인보다 50% 많은 30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전통적인 부부의 13%가 결혼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나, 부인의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경우는 64%가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부부들은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수준임을 애써 숨기거나, 무시, 작은 차이라고 인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rennan, Barnett, Gares(2001)는 미국의 맞벌이 가계에서 부부의 소득수준에 대한 종적(longitudinal) 연구를 수행한 결과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부 모두의 결혼 만족도는 증가

하나, 부인의 소득수준 증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만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은 맞벌이 가계, 부인은 취업한 상태이나 남편이 취업하지 않아 부인소득이 많은 가계, 남편의 소득수준이 부인보다 많은 맞벌이 가계, 부인이 취업하지 않아 남편소득이 높은 전업주부가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 유형 가계의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경제복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 유형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가계유형별로 그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네 가계유형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가계경제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조사한다. 끝으로,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에 따른 네 유형의 가계를 판별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2000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가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총 4,509 가구이다. 조사대상 가계의 선정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에서 확률통계 표집방법인 무작위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남편과 부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즉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부인과 남편의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에 초점을 두고 있고, 경제복지 및 삶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므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계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 가계는 총 1,292 가구이다.

2. 조사도구 및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부부 소득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경제지표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학력, 전문직 종사여부, 자녀 수, 주거지역, 연령 변수이다. 한편, 객관적 경제복지 지표로서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총 가계소득 중 소비지출액

수 비중), 저축,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부채, 부채상환액, 비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소비지출, 저축, 부채상환액, 비근로소득, 이전소득 변수들은 한 달 평균 값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남편 소득 대비 부인소득 비중은 부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 나누기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경제복지 지표로 사용한 변수는 남편과 부인의 가족수입에 대한 만족도,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편, 네 유형의 가계에서 부인과 남편의 삶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고안한 7개 문항의 삶 만족도 지표를 사용하였다. 7개 지표는 가계 경제적 생활,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전반적 생활만족도로서 이들 문항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Vers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한 네 가계 유형의 소득구조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χ^2)검증,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또한, 네 유형의 가계에서 객관적 경제지표, 주관적 경제복지, 삶 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남편과 부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계유형을 판별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 분류 및 특성의 차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계는 총 1,292 가계로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네 가계유형에 대한 분포는 <표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조사대상 가계 중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는 전체 가계의 3%인 40 가계, 남편이 취업하지 않아 부인소득이 높은 가계는 7%인 88 가계, 남편소득이 부인보다 많은 맞벌이 가계는 231 가계(18%), 전업주부 가계는 933 가계(72%)로 드러났다. 여기서, 맞벌이 가계는 전체 조사대상 가계의 21% 로써 서구

<표 1> 부부의 소득수준 구조

가계유형	부인 소득 높음		남편 소득 높음	
	남편취업	남편비취업	부인취업	부인비취업
가계 수 (1,292)	40(3.0%)	88(6.8%)	231(17.8%)	933(72.2%)
맞벌이 271(20.9%)	40	-	231	-
남편소득	110.45	0.00	155.97	158.91
D	b	c	a	a
F 값			151.08***	
부부 근로소득	246.57	82.85	237.82	158.91
D	a	c	a	b
F 값			116.38***	
부인소득높음 359(9.9%)	40	88	231	
맞벌이중 부인소득높음 (40/271=14.7 %)	40			
부인소득	136.12	82.85	81.84	0.00
D	a	b	b	c
F 값			1165.9***	
남편소득중 부인소득비중	55.14	100.00	33.96	0.00
D	b	a	c	d
F 값			19546***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카이(x²)검정의 경우 빈도수물, 괄호안 수치는 %물, ANOVA의 경우 평균값을 의미함.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의 50-70%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 결국,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의 경우 70%가 넘는 가계가 아직도 전형적인 전업주부 가계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인 근로소득이 남편보다 많은 가계는 전체 가계의 10%, 맞벌이 가계만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15%로써, 미국의 30%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기혼여성 취업이 증가하고 여성의 임금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기혼여성 소득의 절대 수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남편보다 부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월 평균 소득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인 소득이 남편 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의 부인소득은 136만원, 남편은 110만원으로, 남편 소득에 대한 부인의 소득 비중은 55%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이 취업하지 않고 부인만이 취업한 가계의 부

인소득은 평균 82만원으로 부인 소득만으로 비교할 경우 부인 소득이 남편보다 낮은 맞벌이 가계의 부인 소득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총 부부소득의 경우 네 유형의 가계 중 가장 낮은 수준, 이를 통해 객관적 경제복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가계의 소득수준, 즉 경제복지는 남편의 취업여부에 의해 결정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업주부 가계의 경우 남편 소득 그 자체는 높은 수준이나 부부 전체 근로소득을 합할 경우 맞벌이 가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취업여부가 경제복지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남편 소득에 대한 부인 소득의 비중은 부인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계에서 55%, 부인 소득이 남편보다 낮은 맞벌이 가계에서 34%로 나타났다.

2. 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에 따라 네 유형으로 가계를 구분한 후 이들 가계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남편 교육수준의 경우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른 유형의 가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졸 79.5%, 대졸 19.3%로 다른 가계의 경우 30%가 넘음). 남편 소득이 부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의 남편 교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원 이상이 9.5%로 다른 가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맞벌이 가계에서 부인이 대졸자인 비율이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보다 부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가계의 경우 대졸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편보다 소득수준은 낮으나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도 21.2%로 다음 순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가계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높은 수준이며, 그 결과 소득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대체로 미국의 경우에도 고학력 여성이 남편의 소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Brennan, Barnett, & Gares, 2001), 본 연구결과와 부합되고 있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편이 취업하지 않고 부인이 취업한 가계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는 15.9%로 다른 가계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남편이 취업하지 않았으므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음에도 취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취업한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한

<표 2>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별 특성 차이

변수구분	부인 소득 높음		남편 소득 높음	
	남편취업	남편비취업	부인취업	부인비취업
남편학력				
고졸	25(62.5)	70(79.5)	147(63.6)	578(62.4)
대졸	14(35.0)	17(19.3)	61(26.4)	308(33.2)
대학원	1(2.5)	1(1.1)	22(9.5)	39(4.2)
χ^2 값			26.95***	
남편전문직여부				
비전문	14(45.1)	-	118(59.2)	441(54.3)
전문직	17(54.8)	-	81(40.7)	370(45.6)
χ^2 값			29.05***	
자녀수	1.52	1.90	1.80	1.75
D	a	b	b	ab
F 값			2.18*	
남편연령	42.48	46.08	42.25	41.55
D	a	b	a	a
F 값			6.80***	
부인학력				
고졸	27(67.5)	72(81.8)	175(75.7)	728(81.4)
대졸	12(30.0)	14(15.9)	49(21.2)	163(18.2)
대학원	1(2.5)	1(1.1)	7(3.0)	3(0.3)
χ^2 값			20.40***	
부인전문직여부				
비전문	14(43.7)	41(62.1)	105(61.7)	-
전문직	18(56.2)	25(37.8)	65(38.2)	-
χ^2 값			15.10***	
주거				
비도시	8(20.0)	24(27.5)	41(18.7)	193(21.1)
도시	32(80.0)	63(72.4)	178(81.2)	719(78.8)
χ^2 값			.39	
부인연령	38.73	42.07	38.63	38.96
D	a	b	a	a
F 값			3.82**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카이(χ^2)검정의 경우 빈도 수를, 괄호 안 수치는 %, ANOVA의 경우 평균값을 의미함.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결과,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에서 부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56.2%로서 네 유형의 가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통계청(2002, 2003)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전문직, 기술행정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부합되고 있다. 한편,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에서 남편이 전문직 종사하는 비중이 54.8%로 남편의 소득수준이 부인보다 높

은 맞벌이 가계의 40.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인이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많은 맞벌이 가계에서 남편 역시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케 한다.

자녀 수의 경우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당 평균 1.52명, 남편이 취업하지 않고 부인이 취업한 가계의 경우 1.90명, 남편 소득이 부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에서 1.80명으로 밝혀졌다. 연령의 경우 남편이 취업하지 않고 부인만이 취업한 가계의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의 연령이 그렇지 않은 세 유형의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이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케 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환경, 즉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IMF 이후 실직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의 비교에 따라 구분한 네 유형의 가계는 대체로, 학력, 전문직 여부, 자녀수,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별 객관적 경제복지 차이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라 구분한 네 유형의 가계에서 소비지출, 저축, 자산, 부채 등 객관적인 경제복지 수준이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네 유형 가계에서 부동산 액수와 총 자산 액수에서만 차이가 없고, 다른 경제복지 지표에서는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월 평균 소비지출액수를 살펴보면, 전업주부가계의 경우 다른 가계보다 가장 낮은 액수인 124만원, 나머지 가계의 경우 대체로 134만원에서 146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계와 비취업주부 가계의 지출액수 차이는 취업주부가계에서의 취업으로 인한 추가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총 가계소득 중 소비지출액수의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의 경우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와 전업주부 가계의 비중이 0.77(소득의 77%가 소비지출 됨), 0.74로써, 부부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중 한 쪽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맞벌이 가계보다 가계소득이 낮은 수준이므로 상대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는 또한, 자동적으로 가계 저축액수가 낮음을 알려 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복지수

<표 3>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별 객관적 경제복지 차이 검증

변수구분	부인 소득 높음		남편 소득 높음	
	남편취업	남편비취업	부인취업	부인비취업
월소비지출	146.32	134.37	142.13	124.33
D	b	b	b	a
F 값			6.30***	
월 저축	65.00	2.82	53.21	38.58
D	a	c	ab	b
F 값			6.07***	
총금융자산	2097.79	1380.72	1352.18	1548.30
D	a	b	b	b
F 값			2.56*	
총 부채	1639.75	1996.89	995.93	873.50
D	b	a	bc	c
F 값			6.57***	
비근로소득	12.25	12.73	12.96	6.33
D	a	a	a	b
F 값			2.51*	
평균소비성향	.65	.77	.70	.74
D	a	b	ab	b
F 값			2.83*	
총 자산	2113.78	1362.17	1683.08	2204.93
D				
F 값			.38	
총부동산 (집제외)	953.62	285.71	491.86	760.43
D				
F 값			.32	
월부채상환	10.97	18.93	12.61	10.20
D	a	b	ab	a
F 값			3.60**	
이전소득	1.50	.38	.46	1.61
D	a	b	b	a
F 값			2.58*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참고: 평균소비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 만원

준이 낮음을 시사한다. 한편, 총 금융자산액을 비교한 결과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의 경우 평균 2,097 만원으로, 나머지 가계의 금융자산 액수인 대략 1300 만원에서 1500 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의 경우 저축액수가 높아져 금융자산의 증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부채의 경우 전업주부 가계가 가장 적었으며,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의 부채 액수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부채와 관련한 또 다른 객관적인 지표인, 월 평균 부채상환액수의 경우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가 약 19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편이 취업하지 않아 부인 소득에만 의존하는 가계의 경우 부채액수가 높고, 동시에 한 달 평균 부채를

갚는 부채상환액수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상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채 상한선은 한달 평균 소득 중 부채상환액수의 비중이 20%로써 이를 넘는 경우 재정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성영애, 양세정, 1995; 최현자, 성영애, 2001).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평균소득 중 부채상환 비율은 22.84% (18.93/82.85=22.84%)이므로 재정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이 아닌 월 평균 비근로소득 액수의 경우 전업주부 가계가 여타 가계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친지나 가족으로부터 얻는 이전소득 액수의 경우 전업주부 가계와 부인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계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자산액수 그리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 총 자산액수의 경우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라 구분한 네 유형의 가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인의 소득이 단기적 지표인 저축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이 강한 부동산 및 총 자산은 네 유형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부가 모두 취업한 가계의 경우 부인만 취업한 가계에 비해 부부의 연령이 낮아 장기적으로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획득하기에 생애주기 상 젊은 세대인 점과, 남편이 실직한 가계라 해도 부부 모두 연령이 높아 자산이나 부동산 축적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상충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소득수준 또는 취업여부는 가계의 객관적 경제복지, 나아가 경제생활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취업주부의 가계경제에의 기여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양세정, 1997b; 1999, 허경옥, 2001)와 부합하고 있다.

4.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별 주관적 경제복지 차이

네 유형의 가계에서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는 가계수입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 변수이다. 먼저, <표4>에 제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계수입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편의 만족도는 네 유형의 가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편들의 경우 가계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부인 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높은 경우 가계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업주부 가계에서 취업하지 않은 부인

<표 4> 부부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별 주관적 경제복지 차이 검증

변수구분	부인 소득 높음		남편 소득 높음	
	남편취업	남편비취업	부인취업	부인비취업
남편 가계 수입 만족	3.55	3.47	3.36	3.32
D				
F 값			1.85	
남편 미래 가계경제전망	3.25	2.98	3.23	3.17
D	a	b	a	ab
F 값			2.62*	
부인 가계 수입 만족	2.95	3.20	3.29	3.50
D	a	b	b	c
F 값			2.94*	
부인 미래 가계경제전망	3.33	3.07	3.18	3.12
D	a	b	ab	ab
F 값			2.44*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의 가계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인 본인의 소득 수준이 가계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알려준다. 부인 자신의 소득액수가 높은 경우 가계 수입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가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향후 미래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는 부인과 남편 공통적으로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취업여부가 향후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에 중요한 사항임을 알려 준다. 맞벌이 가계에서 남편의 전망이 높은 수준이며, 부인의 경우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결국, 부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부인의 가계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이나, 미래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5. 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계유형별 부부의 삶 만족도 차이

본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라 가계유형별 남편과 부인의 삶 만족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표 5> 부부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별 삶 만족도 차이 검증

변수구분	부인 소득 높음		남편 소득 높음	
	남편취업	남편비취업	부인취업	부인비취업
남편삶만족	18.87	19.45	19.12	18.99
D				
F 값			.78	
부인삶만족	18.77	19.61	19.41	19.19
D				
F 값			1.07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결과는 <표5>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남편은 물론 부인의 삶 만족도가 네 유형의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가계라 해서 부부의 삶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거나,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라 해서 삶 만족도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견해는 가계 소득은 대체로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김재경, 문숙재, 1992; 임정빈, 1987; 고정자, 1998). 본 연구는 가계소득과 생활만족도가 아닌 남편과 부인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부인의 상대적 소득수준, 취업여부, 부부의 소득수준의 차이와 삶 만족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부부의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네 유형 가계에 대한 판별분석

앞서, 네 유형의 가계가 객관적 경제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나 분산분석은 여러 변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파악하지 못하므로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지표 및 기타 가계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가계의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 특성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배제하면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를 판별변수로 선정하였다. 판별분석방법은 변수의 판별력에 따라 단계별 변수투입방법(stepwise procedure)이 사용되었으며, 판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는 판별함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6> 부부 소득수준 비교에 따른 가계유형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판별 변수	함수 1	함수 2
남편연령(log취함)	.181	-.073
남편 전문직 여부	-	-
부인 대출 여부	-	-
자녀수	.167	-.039
도시 거주 여부	-	-
평균소비성향	-	-
총 자산	-	-
총 부채	.725	.689
부인 미래 가계경제 전망	-.133	.043
부인 가계수입 만족	-	-
정준상관	.317	.131
wilks's λ	.899	.999
	39.20	.34
집단중심치		
부인소득많음(남편취업)	.003	.143
부인소득많음(남편비취업)	-.112	-.013
남편소득많음(부인취업)	-.023	.027
남편소득많음(부인비취업)	1.203	-.011
가계 유형	예측집단 사례수	예측집단 실제 빈도수(비율)
부인소득많음 (남편취업)	14	2 (14.3 %)
부인소득많음 (남편비취업)	323	171 (52.9 %)
남편소득많음 (부인취업)	85	5 (5.9 %)
남편소득많음 (부인비취업)	36	18 (50.0 %)
정확분류 비율	42.8 %	

<표6>은 판별분석의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분류된 집단의 수는 4개인데,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판별함수인 제 1 함수와 제 2 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의 판별력을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0.31, 0.13으로 모델 설명력이 각각 31%, 13%임을 알 수 있다. 판별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정준판별계수에 따르면, 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계유형을 판별하는 변수는 남편의 연령, 자녀 수, 부채, 부인의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편 연령, 자녀수, 부채, 부인의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는 어떤 특정 가계가 부인의 소득이 높은 가계유형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에 속할 것인지, 전업주부 가계에 속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변수임을 알려 주고 있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 순서는 부채액수, 남편 연령, 자녀 수, 부인의 가계경제 평가 순서로 가계유형

을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중심치(centroids)를 통해 각 가계유형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전업주부 가계와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간의 차이(집단간의 간격: 1.203+0.112)가 가장 크며, 다음이 전업주부가계와 남편 소득이 많은 가계(집단간의 간격: 1.203+.023)임을 알 수 있다. 판별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율우연기준치(C pro:proportional chance criterion)는 30%인데,¹⁾ 본 연구의 경우 분류정확도가 42.8%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판별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가계를 네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이들 가계의 주관적, 객관적 경제복지, 그리고 삶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총 소득은 가계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취업 그리고 소득수준은 가계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체로 맞벌이 가계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았고,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에서 부부의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균소비성향, 저축, 금융자산, 부채 등에서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맞벌이 가계에서 다른 유형의 가계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가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수입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는 네 유형의 가계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부인의 소득수준은 부인 자신의 가계수입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는 부인과 남편 공통적으로 남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가장 비관적으로,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경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취업여부 그리고 부인의 소득수준이 향후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전망에 중요한 사항임을 알려 준다. 그러나, 수입 이외에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삶 만족도는 부부의 소득수준의 비교에 따른 여러 가계유형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

1) 본 연구의 경우 집단이 네 개이므로 우연기준치는 25%이며 이 기준치의 20% 를 추가적으로 합하면 결과는 30%가 됨. 계산 방법은 (25% + (25*0.20)%) = 30%.

로, 네 유형의 가계를 판별하는 가계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연령, 자녀 수, 부채, 부인의 미래 가계경제 평가 점수가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떤 가계가 부인의 소득이 높은 가계유형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에 속할 것인지, 전업주부가계에 속할 것인지는 남편 연령, 자녀수, 부채, 부인의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전망에 의해 판별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본 연구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남편의 취업여부 그리고 부인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경제지표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하겠다. 이 결과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취업보장 그리고 부인의 소득수준 향상이 절대적임을 알려 준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많은 조사자료 및 연구결과에서 일치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기혼여성은 자아실현이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취업하기 보다는 생계유지, 가계 보탬을 위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취업이라는 것이다(양세정, 1997). 특히,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퇴출이 증가하면서 남편을 대신해 일자리를 찾는 생계형 주부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연합뉴스, 2002, 11월 7일),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부합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회적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빈곤가계에서 탈피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취업보장, 남편이 실직한 경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이 시급하다. 특히, 가계빈곤 문제 관련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가계의 소득수준과 부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각 가계유형에 적절하도록 차별화를 꾀하여야 한다. 둘째, 빈곤가계, 그리고 빈곤가계는 아니나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표준을 영위하고 싶은 가계에서 부인의 취업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취업이 저축, 금융자산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결국, 정부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빈곤가계의 경제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객관적 경제복지 수준 향상은 물론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편의 안정적 취업, 기혼여성의 취업과 소득수준 향상이 절대적이므로 사회적 그리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 되어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취업이 실질적 객관적 측면의 경제복지에 중요한지 그리고 주관적 측면은 어떠한지를 조사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취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가

계의 경제복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기혼여성의 취업 및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근로 소득자에 국한하고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기혼여성의 취업 그리고 가계의 경제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및 연구방법의 후속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단순한 맞벌이와 전업주부 가계의 비교 연구가 아닌, 남편이 실직한 가계의 경제복지, 부부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다양한 가계에서의 경제적 복지, 취업유형 및 직업유형에 따른 다양한 가계의 경제복지 등 보다 구체적인 주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부인의 소득수준, 객관적 경제복지, 주관적 경제복지, 삶 만족도

참 고 문 헌

- 강이주, 김영신, 허경옥 (1998). 가계경제학의 이해. 학지사.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김재경, 문숙재 (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1, 53-74.
 고보선, 임정빈 (1992).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대한가정학회지, 10, 2, 191-208.
 고보선, 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제와 가계재정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 15(2), 125-138.
 고보선, 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2), 269-280.
 고보선. 이영호. 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45-58.
 고정자(1997).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97-116.
 계선자, 유을용(2000).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95-111.
 문숙재,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박미금 (1992).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미석 (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주관적 경제

- 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 1, 1-16.
- 성영애, 양세정 (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 1, 207-219.
-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양세정(1997a).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양세정(1997b).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 15(4). 165-182.
- 양세정(1999). 주부취업의 가계 경제적 기여도 측정. *대한가정학회지*, 37, 3, 27-42.
- 이기춘, 민현선(1992). 도시신혼가계의 주부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9(4), 107-120.
- 임정빈 (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자, 성영애 (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1, 235-252.
- 허경옥(2001). 취업주부의 가계경제에의 기여도 조사분석. *소비문화연구*, 4, 1, 45-66.
- Brennan, R. T., & Barnett, R. C., & Gares, K. C. (2001). When she earns more than he does: A longitudinal study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68-182.
- Campbell, A. C. P.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Daniel, R. M., & Maria, C. (1998). Economic well-being following an exit from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May, 476-492.
- McGregor, L. T., & Goldsmith, E. B. (1998). Expanding our understand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Summer, 2-6.
- Sumarwan, U., Hira, T. K. (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 4, 343-363.
- Tichenor, V. J. (1999). Status and income as gendered resources: The case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3, 638-650.
- Yamaguchi, K., & Wang, Y. (2002). Class identification of married employed women and men in America.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 2, 440-475.
- Walson, C. O., & Fitzsimmons, V. S. (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s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 3, 193-214.

(2004. 03. 29 접수; 2004. 06. 04 채택)